

학원·PC방·힐링카페 간판 걸고 신천지 포교 활동

광주 신천지 예배당·시설 109곳 모두 돌아보니

전남대 후문 유명 신천지 카페 명단 누락... 시민 제보로 뒤늦게 폐쇄 대부분 주택가·상가에 위치... 인근 상인들 "신천지 시설인줄 몰라" 광주시 총 103곳 폐쇄 조치 속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 신뢰성 의문 아파트 가정집도 관련시설... 연락 끊은 교인 신속한 소재 파악 시급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신천지 시설이 한 때 광주시의 강제폐쇄명령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교회의 교육 및 포교 시설로 광

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 위치한 '아름다운 신천지' 카페는 애초 광주시의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곳은 전남대 후문 맞은편

3층 건물 전면에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이 시설은 신천지측이 제공한 92개 교회·예배당·선교센터 명단에는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광주시가 지난 27일 폐쇄한 101곳에서도 제외됐다.

광주시는 강제폐쇄 조치를 내린 지 이틀 뒤인 29일에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 광주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7일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했다는 발표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올만했다.

광주일보 기자들이 28-29일 둘러본 광주지역 신천지 교회·예배당·선교센터 109곳은, 신천지측이 스스로 공개한 92곳에다, 광주시가 추가로 확인한 17곳을 합한 수치다.

광주시는 이중 101곳에 대해서만 폐쇄조치를 내렸다가 뒤늦게 정밀 점검을 거쳐 2곳을 추가하는 등 총 103곳을 폐쇄하는 한편, 나머지 시설 6곳은 일단 신천지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신천지 관련 시설 대부분은 주택가·상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학원·PC방·교회·힐링카페 등 당초 사용됐던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29일 오후 3시에 찾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신천지 예비신도 교육장은 '직업전문학교'라는 간판 밑에 광주시가 부친 노란색



폐쇄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신천지 교육장. 교회 간판을 내걸고 포교활동을 해온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 100여개가 비치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스티커가 없었더라면 누가 봐도 직업전문학교로 믿을 만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PC방' 도 노란색 폐쇄스티커가 붙어있어 PC방이 아닌, 신천지 시설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예 '교회' 간판을 걸고 포교 활동을 한 곳도 적지 않았다. 북구 두암동, 서구 쌍촌동, 광산구 우산동, 남구 진월동 교육장은 '교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다. 선교센터 밖 신발장에 놓여진 슬리퍼만 100개가 넘었다. 은밀하게 포교활동을 해온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구 송하동 S아파트는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는데도 복도식 아파트 출입문 앞에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었고, 오징어 가정집인 단독주택 문 앞에서도 '폐쇄'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은밀하게 이뤄졌던 포교활동과 신천지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폐쇄된 신천지 시설들은 또 지역민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장소에서도 포교 활동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구 황금동 상가에 위치한 선교센터는 젊은층이 즐겨 찾는 만화방, PC방, 초밥 음식점 등이 즐비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폐쇄 스티커가 붙은 신천지 시설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시설 폐쇄 스티커가 붙기 전에는 신천지 시설인 줄 몰랐다"면서 "신천지 교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산구 우산동 '다문화센터'로 이름 붙은 선교센터는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인근 상가 주민들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는 광주시 남구 송하동 S아파트 한 가구가 신천지 시설로 파악되면서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어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은 입을 모았다. 선교센터가 들어선 4층짜리 상가 건물에만 무려 25개에 이르는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광주시가 신천지에서 받은 2만 488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의심 증상을 보인 교인만 409명에 달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밀접 접촉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부 시설은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인근,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해 전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경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이나 노인들의 집단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광주시가 신천지측의 신도 명단과 정부가 제공한 명단 사이에 무려 7210명이나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고발 조치 등을 예고하며,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전체 명단과 숨겨진 신천지 시설을 제대로 파악해야 누가 대구에 갔는지, 기존 확진자와 얼마나 접촉했는지, 현재 증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있는 '사이 신천지'들의 소재 파악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009명에 대해 조사(1차 739명, 2차 270명)를 통해 97%(981명)의 소재를 확인, 보건 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미확인된 28명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신천지 교회·공부방 현황 (시설 총103곳)



※ 폐쇄된 시설 103곳 명단·위치는 인터넷 광주일보 참조하세요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늘어나는 '집콕족' ...아이들은 '컴퓨터 전쟁'

낮밤 바뀌어 올빼미족 양산 부모들 코로나 후유증 걱정

"코로나 여파로 학원도 쉬고, 대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바람에 아이들 사이에 서로 컴퓨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매일 펼쳐 집니다. 날마다 새벽에 자고, 낮과 밤도 바뀌어 정말 큰일이네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사는 정모(여·44)씨는 26일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 학원이 휴원한데다 대학생인 큰 아이도 학교에 나가지 않아 집이 피시방이 됐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져 다시 학원이 문을 열면 코로나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포근한 봄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집콕', '방콕' 하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도 외출을 못하는 바람에 낮에 잠을 자고, 오히려 밤에 노는 경향으로 인해 낮밤이 바뀐 올빼미족도 생겨나고 있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광주·전남 낮 최고 기온은 7-13도 분포의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포근한 날씨가 예보됐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 분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과 휴일이면 북적거렸던 극장,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발길도 끊어졌다. 평소 차량 정체가 심했던 광주시 일대 예식장 주변도 썰렁해졌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연기하고, 소규모 모임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전주교광주대학교가 지난 1937년 교구 창설 이래 83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는 등 종교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

다.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취소했으며 일부 교회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코로나로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틀어박힌 '집콕족'도 크게 늘고 있다.

학부모 김모(50)씨는 "학교는 물론 학원까지 안 가니 아이들이 새벽까지 컴퓨터와 영화를 본 뒤, 다음날 점심 이후에야 일어난다"면서 "자칫 낮과 밤이 바뀌어서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달리 대안이 없어 지켜보지만 속은 터진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준다며 피자배달원 때린 40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피자배달원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5·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광주·전남 낮 최고 기온은 7-13도 분포의

금영수증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발급이 어렵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진술만 들은 상태로, 추후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